

Christian Friends of Korea

PO Box 936, Black Mountain, NC 28711-0936

Tel: 828-669-2355 Fax: 828-669-2357

Website: www.cfk.org Email: cfk@cfk.org

2004년 5월호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9)

용천 열차참사; CFK의 북한 지원의 새로운 문을 열다

용천(북한의 북서지역, 신의주에서 10Km지역) 열차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22일, 우리 CFK 한 팀이 옥수수 종자의 도착을 확인하기 위해서 북한의 북동지역을 방문중 이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직후, 초대소에 연결되어 있는 국제 위성중계 뉴스를 통하여 사고가 그 전날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북한 당국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용천 참사 소식은 그 때까지 북한 국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얼마 후 용천참사 소식을 확인한 다음, 우리들의 지원의사에 감사의 뜻과 함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들과 그들 사이의 우정과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북한 사람들을 도와 온 것을 주목하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든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토의한 후, 방금 도착한 화차 2량 분의 콩(60MT)의 도착지점을 즉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장 단기간으로는 참사를 당한 주민들의 쉼터로 사용될 수 있고, 후에는 농사용으로 용도를 바꿀 수도 있는 작은 비닐하우스를 사고지역으로 보내는 것도 협의하였습니다.

후에, 우리는 참사지역을 급히 다녀 온 세계보건기구 직원들을 평양에서 만났는데, 그들이 알려준 그때까지의 참사현황은 사망 169명, 부상 1,300명 이상이며 용천 지역에 빌딩 재건축을 포함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약품과 의료기구, 식량과 비닐하우스 외에 다른 물품들을 지원할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공공건물 30채와 주택 1,850채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부서진 가옥도 6,250채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기가 시작되는 7월 전에 임시 쉼터도 지어져야 하며,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주택이 복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재앙에 신속히 대처하고 그들을 하루 빨리 돕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재정적인 지원을 긴급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Photo 1: 북한 용천의 열차 폭발로 생긴 거대한 분화구를 구조대원들이 지나고 있다

CFK 팀 옥수수 종자의 도착 확인

지난 4월17일부터 27일까지 CFK 팀은 양강도 지역의 고산지대에 옥수수 종자의 도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북한에 체류하였습니다.

지난해 방문했던 CFK팀처럼 우리도 많은 시간을 험하고 좁은 산간도로를 여행하는데 소모하였으며, 지나는 길에 차창에 비추인 사람들의 생활은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투영된 그들의 어려운 생활고를 모든 CFK 후원자들과 나누고 싶었지만, 그 모습들은 단지 우리의 뇌리에만 박혀있기에 보여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일 아침, 평양의 칠골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 우리는 평양을 출발하여 가파른 산맥과 긴 터널들을 지나 동쪽 끝인 항구도시 원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국도변을 따라 이른 봄꽃인 노오란 개나리와 연분홍색 진달래가 한껏 피어 겨울의 죽음으로부터 깨어나는 산하의 군데군데를 생명의 아름다움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원산에서 길은 방향을 북쪽으로 향하며 서쪽으로는 거대한 산맥들을 울타리 삼아 좁은 해안 평지를 따라 얇은 구릉지대를 지나게 됩니다. 이곳은 작은 과수원들이 드문드문 그리고 가옥들은 점점이 자리한 풍경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휴일인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밭과 논에는 봄에 씨를 뿌리기 위하여 소나 트랙터가 끄는 쟁기질이 한창이었습니다.

평양을 벗어난 후, 우리는 첫날 밤을 공업과 항구도시인 함흥에서 지냈습니다. 함흥에 가까이 다가 갈수록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어린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음식 조리용 나무(장작)를 잔뜩 실은 리어카(손수레)를 끌고 가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시내에 나르기 위해 무거워 보이는 리어카(손수레)를 험하고 먼지 나는 먼 길을 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Photo 2: 양강도 지역 백무연구소 앞에서 선 CFK 팀

함흥을 지나 북쪽으로 향한 길은 순 자갈길 (그래도 깨어진 포장도로보다는 덜 덜컹 거렸음)이었으며, 높은 산봉우리들을 지나면서 급강하하는 바람이 몹시 심하게 부는 길이었습니다. (길을 따라 수 마일마다 길가에 더미를 이루고 있는 흙을 길 위에 퍼기 위한 도로보수공사를 수백의 사람들, 노동자와 학생 그룹들이 갈퀴와 삽만을 사용해서 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어나 자전거 뒤에 무거운 짐을 싣고 길을 따라 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소달구지에 여러 가지 짐을 잔뜩 싣고 사람들을 태우고 가는 모습이 많이 보였으며, 많은 사람들은 손수레를 끌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멤버 한 사람이 대충 측정해 보았는데, 자동차 한 대당 보행자는 약 50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나는 도로변 건너 풀밭에서 돼지, 개, 당나귀뿐만 아니라 염소, 양, 심지어 오리들이 새로 나오는 봄 풀을 뜯어 먹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북한에서 이전에 보았던 어떤 모습보다 더 고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청진의 북쪽 도시를 향하는 도중, 광산 폐기물이 웬만한 산 높이만한 더미를 이루고 있는 여러 군데의 광대한 광산지대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몇 군데 광산은 문을 닫았거나 황폐해져 있거나 철거 되었지만, 많은 곳들은 긴 휴면의 기간을 끝내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는 태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둘러 쌓인 산들은 산자락에서부터 정상까지 경작되고 있었으며, 심지어 농사 짓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경사지도 밭으로 개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지른 곳(화전)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이동은 여전히 심하게 제한되어 있음에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수확이 적은 척박한 땅을 경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령에서의 길은 서쪽으로 향하며, 중국과 국경을 이루는 수심은 얇고 강폭은 넓으며 구불구불한 두만강 연안을 따라갑니다. 이 도로를 따라 검문소가 자주 있으며, 또한 북한과 중국의 경제적인 차이와 대조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북한쪽은 가옥들은 초라하며, 비닐하우스도 없고, 경작지는 산꼭대기까지 개간되어 있고, 사람들은 모든 밭일을 손으로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강 제방에서의 보안 조치는 눈에 띌 정도로 상엄합니다. 반면에 중국쪽 산들은 푸르른 숲으로 뒤덮여 있고, 마을에는 네온사인 불이 밝혀져 있으며 도로는 모두 밝은 사인과 함께 잘 포장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집들은 새롭게 지은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자동차를 마당에 가지고 있는 집들도 있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빈부차이는 극명했으며, 이 빈부차이를 보는 것 자체만도 우리에게 고통이었습니다.

회령의 서쪽에 위치한 대흥단에서부터 매우 높은 산간지대인 백무고원까지의 길은 경사가 아주 급한 오르막 길입니다. 이 곳은 해발 1,250미터(4,000피트 이상)나 되고, 북쪽으로는 모든 한국인들에게는 민족의 성산으로, 특히 북한 사람들에게는 신화화된 백두산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고원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구수는 77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의 주식은 감자이며, 거기에 약간의 밀과 보리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제공한 옥수수가 그들의 식량문제 해결에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상당기간 북한사람들은 그들의 주식인 감자와 윤작할 대체작물의 재배와 수확에 대해 다방면으로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산기후 탓으로 성장기간이 매우 짧은 지역이기에, 이 고원지대에서 북한산 옥수수는 제대로 자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공한 ‘고산지대용 옥수수 종자’는 지난 몇 해 동안 이 고산지대에서도 잘 자라고, 또한 수확량은 다른 작물의 3배까지 생산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Photo 3: 데이브 크리스텐센씨가 북한 옥수수 연구원들과 함께

종자 선별에 대해 의논하는 모습

이 지역을 방문하는 기간 중, 우리는 이 지역 옥수수 재배에 대한 책임부서인 ‘도립농사연구원’ 직원 두 사람을 만났는데, 비록 이 옥수수가 종자로는 적합하지 않아도 식량으로는 사용될 수 있기에, 올해는 이 옥수수의 씨를 양산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에 보낸 옥수수의 포장백이 분배를 위해서 보다 큰 용기에 옮겨 담겨지기는 하였지만(북한당국에 의해), 선적한 3 종류의 옥수수 종자 중, 2종류가 도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낸 옥수수 종자는 양강도내의 6개 지역으로 파종 시기인 5월 중순에 맞추어 분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8월말 수확시기를 맞추어 이 지역에 다시 방문해줄 것을 요청 받았습니다.

Photo 4: CFK가 보낸 고산지대용 옥수수 종자 (북한의 삼지연)

우리는 이 지역의 산간호텔에서 하룻밤을 머물렀고, 식사는 네 끼를 하였습니다. 전체 식사 메뉴는 9가지였는데, 그 중 6가지가 각기 다른 감자요리였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농업연구소(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에서 감독 직원과 옥수수 종자에 대한 기술적인 토의를 가진 결과, 그들이 우리가 지원한 옥수수 종자가 식량생산의 차원에서 유일무이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확신과 이 옥수수 프로젝트가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양강도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들을 만나고, 또 미국인들과 우정을 나누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당신들이 보내준 옥수수 종자는 시험 결과 이 지역의 어떤 다른 옥수수 종자보다 월등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종자를 양산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의 도움은 저희의 미래를 위해서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농사 연구소 소장 – **Director of the Agricultural Science**)

Photo 5: 옥수수 종자의 도착 확인 모습

양강도에서 돌아 온 후, 우리는 남쪽으로 향하여 ‘해주 결핵 요양원’을 방문하여, 우리가 몇 해전에 기증했던 발전기(고장이 났던 모양)를 잘 고쳐 놓았으며, 다양한 나무 종자를 키우는 ‘중앙수목원(Central Tree Nursery)’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토의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계 활동 (Summer Activities)

올 7월에 우리는 북한에 기술팀과 감사팀을 파견하였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의 기술팀이 개성지역 소아과 병원 (예전 감리교 아이비 병원)에 설치해 주기를 원하는 것들은 수술실, 실험실, X-레이, 치과 장비 및 발전 설비 등입니다. 우리 감사팀이 도착과 함께 확인하기를 원하는 여러 차례의 선적이 최근에 이미 도착했습니다. 이 사역들과 용천 열차 참사에 대한 CFK의 신속한 지원을 가능케 한, 후원자 여러분의 기도와 재정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북한에서 머물렀던 동안, 저희는 이사야 55장 전체를 그룹으로 묵상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용기를 크게 북돋아 주셨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의 약속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누렸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약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 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 55:10-11)

Christian Friends of Korea

CFK는 면세 비영리 재단으로서 인도주의적, 교육적 그리고 종교적 프로그램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1995년 창립되었습니다. CFK에 대한 후원은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FK에 대한 후원은 주식이나 현금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수표의 수취인은 ‘Christian Friends of Korea’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CFK 사역의 후원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문의 사항이나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